

신예 화가 박수근의 등단 춘천과 평양에서의 초기 미술 활동을 중심으로

배원정

I. 머리말

裴原正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충의대학교 문학 박사
동아시아 근현대미술사

박수근(朴壽根, 1914~1965)은 이중섭(李仲燮, 1916~1959), 김환기(金煥基, 1913~1974)와 더불어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에게는 ‘국민화가’, ‘민족의 화가’, ‘향토적인 화가’, ‘서민적인 체취의 화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실제로 화강암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마티에르의 표면에 단순하면서도 질박한 필치로 토속적인 주제를 친근한 미감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광범위한 인기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박수근에 대해서는 그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화가인 만큼 그에 걸맞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그의 독자적인 양식과 화풍을 형성하는 데

* 필자의 최근 논저: 「김관호(金觀鎬, 1890년-1959년) 행적의 새로운 고증과 제 문제」, 『미술사학』57, 2021.12; 「중국 근대 천진의 개항과 유규령(劉奎齡)의 회화」, 『인문과학연구논총』42:2, 2021. 5.

1) 박수근의 작품세계 전반을 다룬 논문 및 단행본으로 윤법모, 「박수근의 예술세계와 민족미의 구현」, 『한국근현대미술사학』3 (1996), pp.6-45; 김현숙, 「소외의 미학-박수근 작품세계의 기조」, 『한국근대미술사학』3 (1996), pp.46-92; 오광수, 『박수근』(시공아트, 2002); 이대일, 『사랑하다, 기다리다, 나목이 되다』(하늘아래, 2002); 서성록, 『사랑이 숨쉬는 공간: 박수근』(재원, 2002); 최열, 『시대공감: 박수근 평전』(마로니에북스, 2011); 하수봉, 『박수근의 생애와 소묘작품에 대한 연구』(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등을 참조. 박수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성과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서

기반이 되었을 춘천과 평양에서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가 제도적인 미술 교육을 받으며 화가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았을 경우 확인 가능한 학적이나 사승관계 및 동학과의 교유관계 등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기록으로 남겨진 해방 이전의 자료 자체가 드물고, 평양에서의 행적 또한 분단 현실로 인해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도 그의 초기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이 때문에 박수근의 초기 활동에 관해서는 대부분 그의 부인 김복순(1922-1979) 여사의 남편에 대한 회고록과 춘천에서 알게 된 지인, 그리고 평양 출신의 몇몇 화가들에 의한 구술채록에 의존해 복원되어온 데에 그친 아쉬움이 컸다.

본 논문은 새롭게 발굴한 신문 및 잡지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박수근의 춘천 및 평양에서의 행적과 활동을 파악할 것이다.² 이는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그의 초기 생애를 복원하는 것으로서 한 작가의 생애를 온전히 파악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는 독특하고 독자적인 박수근의 화풍 형성에 있어서 그의 초기 생애가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 파악하는 기반 작업이 될 것이다.

II. 춘천에서의 활동

박수근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만 15세이던 1929년 3월 양구공립보통학교(陽口公立普通學校)를 졸업했으나,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이후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³ 양구공립보통학교의 담임교사였던 오득영(吳得泳)과 일본인 교장 시미즈 기요

성록, 「박수근 회화의 기독교적 고찰」, 『신앙과 학문』22:2 (2017), pp.83-113; 하수봉, 「박수근 회화의 표현기법 연구: 진위문제, 편년 재조정 그리고 재현작업을 중심으로」(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공주형, 「박수근 미술의 전개와 확장: 미술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21:1 (2020), pp.30-31; 정무정, 「박수근과 외국인 소장가의 조우 - 냉전 문화의 한 양상」, 『동양미술사학』14 (2022), pp.199-220 등을 꼽을 수 있다. 근래에는 국립현대미술관 터수궁에서 박수근 회고전이 개최된 바 있다. 출품된 작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전시도록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국립현대미술관, 2021) 참조.

2 박수근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주신 연희진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3 박수근이 양구보통학교를 졸업한 시기에 대해서는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홈페이지 작가연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박수근 관련 연구서 및 학술논문 등에 1927년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도록 『박수근-봄을 기다리는 나목』 연보에서는 그의 양구보통학교 졸업 시기를 1929년 3월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박수근의 자필 이력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작가 본인이 기술한 이력서 또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었을 때,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될 것

시(清水清)는 박수근의 초기 후원자였다. 특히 시미즈는 집에서라도 그림 공부를 계속하리며 연필과 도화지를 사주고 격려해주었다고 전해진다.⁴ 박수근에게 춘천은 그가 화가로 활동하는 데 길을 열어주고, 개인전을 처음으로 가졌던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수근이 완전히 춘천으로 거처를 옮긴 시기는 1935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춘천은 서울을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개통되었고, 광업이 발달 및 활성화되어 춘천의 지역경제가 최고로 활성화되던 해였다. 춘천은 양구에서 한 시간이면 올 수 있는 대도시였으며, 당시 춘천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⁵

또한 춘천은 강원도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20년대부터는 미술 전람회나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던 곳이었다. 여기에는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이하 춘천고보)의 미술교사 이시구로 요시야스(石黒義保, 1890~1977)의 역할이 커졌다.⁶

이다. 이에 대해 ‘박수근 카탈로그 레조네 연구’사업의 팀장을 맡았던 안동대학교 서성록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일제강점기 때의 자료가 학교에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박수근의 1927년 졸업설은 그가 1914년 2월 21일생이 사실임을 전제했을 때, 만 7세에 입학하여 6년 간의 학사과정을 마쳤다면 1927년 3월 졸업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 박수근의 담임교사 오득영이 양구보통학교에 부임한 시기가 1927년부터이기에 시기적으로 박수근의 담임을 맡았을 수가 없어 문제가 된다. 또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주었다는 일본인 교장 시미즈 기요시도 1929년 고성보통학교로 옮긴 까닭에 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쏟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의 태어난 해가 1914년이 아닐 경우, 또는 양구보통학교를 다니던 중 무언가의 사정으로 늦은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1929년 3월에 졸업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오득영 선생님과의 만남과 1929년 양구보통학교로 부임한 일본인 교장 松元藏之助이 1934년까지 재직하였기 때문에 1929년 졸업 가능성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1931년 8월 21일자 『朝鮮日報』에 실린 「陽口 唯一한 畫家」에는 “강원도 양구에 본적을 둔 박수근군은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 당지 보통학교를 맛치고서 예술에 씩트는 붉은 마음을 감출 수 없서 그는 비가 나리는 날이나 눈오는 날을 헤아리지 안코서 매일가터 ‘컴파스’ 대를 떠나지안코 그림그리기에 열성을 다한다는데 금주 개최될 미술박람회의 출품할 작품을 그리기에 분망하다하여 전문적미술학교도 맛치지 못하고 우수한 작품을 만든다하여 일반은 과대가 만타고 한다”(밑줄은 필자)고 밝혀 그의 자필이력서 및 주변 지인들과의 교류 시기,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1929년 3월에 졸업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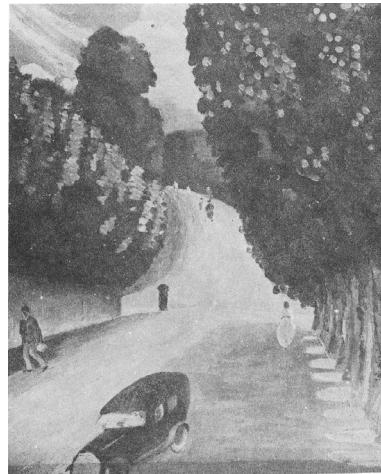
4 오득영은 1927년부터 1930년까지 양구보통학교에 근무했다. 그런데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총독부직원록에는 오득영이 오득룡(吳得龍)으로 오기(誤記)되었다. 1930년부터 오득영으로 정정되어 기록되었는데, 1929년까지의 오득룡과 1930년의 오득영은 관등(官等)이 같으며, 근무연수와 학교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없어 오득룡과 오득영은 동일 인물이다. 1931년에는 춘천에 소재한 사내보통학교(史內普通學校)로 이동하였고, 1936년부터 홍천에 있는 북방보통학교(北方普通學校)에 재직하였다. 1932년 박수근이 조선미술전람회에 그림을 출품할 때 이를 상의하고 졸업 후에도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격려해주었다는 일본인 교장은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양구보통학교장을 지냈던 松元藏之助로 추정된다.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참조.

5 유춘동, 「춘천, 약사명동을 거쳐 간 예술가의 조명: 권진규, 박수근, 김추자」, 『근대서지』 24 (2021. 12), p.279.

6 이시구로 요시야스는 1917년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4월부터 춘천고보에 근무하다가 1929

이시구로는 1926년 4월부터 춘천고보에 부임했는데, 1927년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이하 조선미전)에 처음으로 출품한 <조춘(早春)>이 바로 특선을 수상해 화제가 되었던 춘천의 유명화가였다. 그해 10월 30일 경성일보 춘천지사의 주최로 『가타야마 단·이시구로 요시야스 미술전(堅山坦·石黒義保美術展)』이 춘천고보에서 개최되어 가타야마 단(堅山坦, 1900~?)의 작품 11점과 이시구로의 작품 수십 점이 전시되었다. 이때 전시 중 판매가 예약된 작품만 45점에 달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춘천은 미술 애호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었고, 미술교육의 여건도 양호하였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⁷

박수근도 춘천지역에서 주목받던 이시구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수근이 1931년 『조선일보미술박람회』에 출품한 <가로(街路)>도¹는 흑백도판이긴 하지만, 이시구로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리와 행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제재와 구도, 화풍에 있어서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² 이시구로는 춘천고보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 1929년 도다 가초오(遠田運雄, 1899~1955)의 후임으로 용산중학교 미술 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시구로가 떠난 춘천고보의 후임으로는 조선미전에서 서양화 뿐 아니라 동양화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하라 다케오(原竹男)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재직하였다.⁹



7 년 용산중학교로 옮겼다. 조선회단의 고겐사(虹原社), 레이란회(蘭圃會), 조선예술사(朝鮮藝術社), 청구회(靑邱會) 등 여러 미술 단체에 참여하며 조선회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시구로에 대한 당시 회단에서의 평가 등에 대해서는 황정수, 『일본 화가들 조선을 그리다』(이숲, 2019), p.160 참조.

8 「春川の美術展」, 『京城日報』, 1927. 11. 6, p.5; 「春川美展 大盛況」, 『毎日申報』, 1927. 11. 6, p.6.

9 「兒童作品」, 『朝鮮日報』, 1931. 8. 20, p.5.

10 하라 다케오는 춘천고보 재직 이후에는 1934년부터 1938년까지 평양사범학교 미술 교사로 근무하였다. 1935년 10월 25일 평양의학전문학교(平壤醫學專門學校)에서 주최한 제5회 『평양부 중등학교미술전(平壤府中等學校美術展)』에서 평양화단을 대표하는 평양고등여학교 교사 애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郎, 1904~?), 평양고등보통학교의 니노미야 후지마로(二宮不二磨, 1905~1986),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의 山本虎之助, 삭성회 출신의 최영신(崔信榮), 배홍권(裴興權) 등과 함께 심사를 맡았고, 1936년에는 평양지역 중등학교 교사들과 합동회화전람회를 개최하여 애구치, 니노미야를 비롯한 평양중학교 교사 다부치 히데아키(田淵秀明) 등과 함께 『五人社展』을 갖기도 하는 등 평양지역의 미술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동양화와 서양화 모두에 능했다. 「獨自の生彩放つ-平壤中等學校繪畫展」, 『朝日新聞』, 1935. 10. 25, p.5; 「中等校先生の合同繪畫展」, 『朝日新聞』, 1936. 8. 21, p.5.

1 박수근
<가로>
1931
조선일보미술전람회
출품작

2 이시구로 요시야스
<하의(夏意)>
1929년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



3
박문옥
<풍경 A>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작품

4
하라 타케오
<수변>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작품

박수근은 만 16세가 되던 해인 1930년 춘천에서 일본인 미술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소양호 주변을 스케치했다고 전한다.¹⁰ 이에 따르면 당시 박수근이 만났던 일본인 미술 교사는 하라 다케오일 가능성이 높다. 하라는 1932년 11월 3일 춘천금용조합(春川金組樓)에서 박문옥(朴文玉), 심영수(沈永壽), 박문길(朴文吉), 히라이 기요시(平井清) 등 4인과 함께 제1회 《강춘회작품전(江春會作品展)》을 개최하였다.¹¹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박문옥, 심영수, 박문길 등의 조선미전 출품작이 모두 수채화 중심인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들은 춘천고보에서 하라 다케오, 이시구로에게 그림을 배웠던 학생들이 아닐까 추정된다.^{도3} 같은 해 박수근은 조선미전에서 <봄이 오다(春の訪れ)>로 첫 입선을 하였다. 박수근도 이 전시를 관람했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랬다면 춘천의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단 욕구와 함께 많은 자극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라가 1935년 평양사범학교로 옮기기 전 춘천에서 조선미전에 출품한 작품은 2점이다. 1930년 출품작 <수변(水邊)>은 당시 유행하던 향토색을 보여주는데,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을 비워진 배경에 평면적으로 그려낸 수묵채색화이다.^{도4} 그의 작품은 대체로 여성을 단독 주인공으로 삼아 화면에 클로즈업하여 단순한 필선을 이용해 도안적이고 간략하게 그리는 특징을 지닌다. 박수근의 작품과도 소재적, 구성적인 면에서 상통한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박수근이 교유했던 이연호가 “당시 박수근을 알게 된 계기가 춘천고보를 다니던 시절 미술선생님이었던 ‘시마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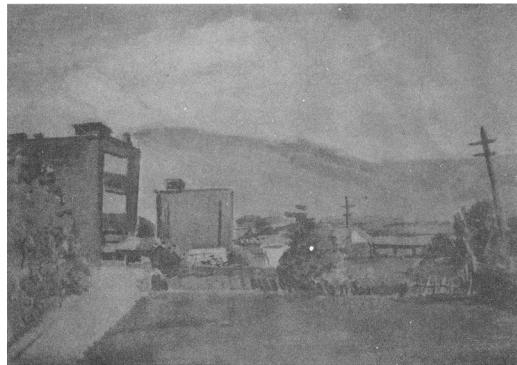
10 이에 대해 이대일은 “상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양구보통학교 일본인 교장 선생의 배려로 추측된다. 당시 춘천은 양구와 같은 산골에 견줄 바가 아니어서 고등교육기관도 있었고, 따라서 미술을 전공한 선생들도 있었을 테니 불가능한 동경 유학을 대신해 미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을 것이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하수봉은 “실제 이때는 박수근이 춘천에 살지 않던 시기였지만, 당시만 해도 양구에서 춘천까지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춘천으로 그림을 배우기 위해 왕래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춘천의 일본인 작가들과의 교류가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에 출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고 지적한다. 이대일, 위의 책, p.36; 하수봉, 앞의 논문, p.9. 참조.

11 조선미전 출품작가들로 조직된 강춘회(江春會)의 회원은 하라 다케오를 비롯해 박문옥, 심영수, 박문길, 平井 4인으로 구성된 춘천 작가 중심의 미술 단체였다. 1932년 이후에도 강춘회의 전람회가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벽여 점에 달하는 작품들을 전시하여 전람회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박문옥은 1928년부터 1931년까지 조선미전에 연속으로 입선하였으며, 심영수와 박문길은 1931년 조선미전에 입선했다.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히라이(平井)의 경우, 1929년 전남에 살다 1930년부터 춘천에 머물렀던 히라이 기요시(平井清)으로 추정된다. 히라이 기요시는 1929년부터 1931년을 제외하고 1932년까지 연속 입선한 화가이다. 「江春會作品展」『毎日申報』, 1932. 11. 5, p.5.

‘사브로’라는 일본인 화가를 통해서였다”고 증언한 점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박수근이 춘천 시절 최소한 춘천고보 미술교사 ‘시마타니 사브로’와는 확실하게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이연호가 언급한 ‘시마타니 사브로’는 정황상 ‘시마타니 모토오(島谷源夫)’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시마타니 사브로’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의 오류로 생각된다. 그는 하라 다케오의 후임으로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춘천고보에 재직하다 이후 자리를 옮겨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춘천중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시마타니가 1937년 조선미전에 출품한 작품 <교사가 있는 풍경(校舎のある風景)>은 아마도 춘천고보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짐작된다.¹³ 이처럼 당시 춘천고보 미술교사들의 화풍은 분텐(文展)계열의 아카데미즘 양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니카텐(二科展) 계열의 표현주의적 성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1930년대 향토적 소재주의가 만연하던 시절 이들의 그림에서도 향토성이 짙게 깔려있었다는 점에서 박수근이 선택했던 소재나 주제들 역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⁴

한편, 박수근은 춘천에서 첫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사후(死後) 박수근에 대한 평가 가운데 ‘불우한 예술가’란 이미지가 형성된 데에는 ‘생전 개인전 한번 못해본 화가’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는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¹⁵ 여기에는 박수근과 교유했던 시인 황금찬(黃錦燦, 1918~2017)이 박수근에게 직접 들은 것이라며 그가 17세 때 춘천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5
시마타니 모토오
<교사가 있는 풍경>
1937년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

12 「KBS 다큐멘터리 <화가 박수근>」(1990), 『귀로』(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2016), p.152. 화가 이연호는 목사가 되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박수근은 해방 이후에도 이연호와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들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는 서성록, 앞의 책, pp.43~47 참조.

13 박수근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향토주의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박계리, 『모더니티와 전통론-흔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혜안, 2014), pp.267~271 참조.

14 박수근이 작고하자 『동아일보』에서는 “국내에서 개인전이나 동인전을 갖지 못한 화가”라며 그의 죽음을 알렸고, 1965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중앙공보관 회랑에서 열렸던 『박수근유작전』을 그의 첫 개인전으로 소개하였다. 「어느 藝術家의 죽음-『이젤』조차 없이…가난으로 보낸 나날 朴壽根씨 경우」, 『동아일보』, 1965. 5. 8, p.5; 「朴壽根遺作展」, 『동아일보』, 1965. 10. 7, p.5.

그가 아직 선전에 첫 입선도 하기 전이라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¹⁵ 또 박수근의 부인 김복순 여사의 회고록에도 “춘천도청 사회과에 삼길과장[三吉(일본인)]이 있었는데…춘천에서 한번 개인전도 열게 해주셨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 역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정설화(定說化)되지 못했다.¹⁶ 이에 ‘박수근 카탈로그 레조네 사업’에서는 해방 이전 박수근의 전람회 참여 횟수를 조선미전에서 입선한 9번으로 산출하였다.¹⁷ 그러나 실제 박수근은 춘천에서 1937년과 1938년 두 번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던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

김복순 여사의 회고록에도 몇 번 등장하는 ‘삼길 과장’은 바로 미요시 이와키치(三吉岩吉)로 그는 당시 박수근 관련 기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춘천에 있던 강원도청 사회과장으로 박수근의 재능을 높이 사고관(高官)들에게 그림을 팔아주기도 하고, 개인전을 주선하기도 하는 등 박수근이 화가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과연 박수근은 미요시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미요시는 박수근을 왜 후원해주었던 것일까.

국립현대미술관 박수근 회고전 전시도록의 「작가연보」에는 “1935년, 박수근 흘로 춘천으로 가서 지낸 강원도청 사회과장 미요시 이와키치와 양구공립보통학교 시절 은사인 오득영 등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생활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¹⁹ 그러나 미요시는 1935년까지 전북도청(全北道廳) 촉탁(囑託)으로 근무하다 1936년 5월 19일 강원도청(江原道廳) 내무부(內務部) 지방과(地方課) 사회주사(社會主事)로 발령받았다. 즉 박수근이 춘천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미요시를 만나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²⁰ 이에 미요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15 황금찬, 「눈물의 화가- 박수근편」, 『문화세계』(2010. 4), pp.53-59 참조.

16 김복순, 「나의 남편 박수근」, 『우리의 화가 박수근』(시공사, 1995), pp.21-22. 박수근 개인전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논의들에 대해서는 서성록, 「박수근의 SAC 개인전 연구」, 『기초조형학연구』19:5 (2018), p.368 참조.

17 서성록, 「박수근 전작도록 연구의 세목과 결과」, 『기초조형학연구』21:5 (2020), p.291.

18 김복순, 「나의 남편 박수근」, 『우리의 화가 박수근』(시공사, 1995), pp.21-22.

19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국립현대미술관, 2021), p.288.

20 미요시 이와키치는 1924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에 머물렀던 관료로 경상북도 대구부에서 부리원(府吏員)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33년까지 서기(書記)로 재직하였다. 이후 1934년 전라북도 지방과에서 월수당 130-140원을 받고 촉탁(囑託)으로 1935년까지 근무했다. 이후 1936년 강원도 사회주사로 발령 받았는데, 1938년에는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인 경성보호관찰서에 촉탁보호사(囑託保護司)로 발령받아 강원도사회주사(江原道社會主事)를 겸직하기도 했다. 이후 1938년 미요시는 과장으로 진급하여 강원도청 사회과로 재발령받아 1939년부터 평안남도청 사회과장으로 1941년까지 근무했다.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참조.

할 춘천의 중요한 사교 모임이 있다. 바로 소양구락부(昭陽俱樂部)이다.

소양구락부는 춘천지역의 교양인을 표방하는 이들 가운데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 일종의 사진동호회(클럽)이다. 1936년 소양구락부는 23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사진회(寫眞會)를 결성하고 2월 11일 요정(料亭) 소양헌(昭陽軒)에서 발회식(發會式)을 거행하였다. 소양구락부는 사무소를 조선신문(朝鮮新聞) 춘천지국(春川支局)에 설치하고, 사진술을 연구하여 회원 전체의 취미를 고양시킨다는 목적 아래 잘 찍은 사진들을 골라 사진경진대회(競寫會)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²¹ 다음 달 소양구락부는 즉시 총회(總會)를 개최하여 회원 세 명이 가져온 사진들을 추첨해 이를 비평하고 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모임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²² 마침내 제1회 소양구락부 사진대회가 5월 3일에 개최되어 회원들은 오전에는 춘천신사(春川神社) 경내를 출사(出寫) 장소로 정하고, 오후에는 소양정(昭陽亭) 부근 언덕 등지에서 촬영하였다.²³ 그리고 며칠 뒤 이날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들을 발표하는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를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중부지역에서 제일 활성화된 사교 모임이자 아마추어 사진 단체로 명성을 얻어나갔다.²⁴ 1936년 초 결성된 이 소양구락부(클럽)는 연말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936년 11월 5일자 『朝鮮新聞』에는 11월 1일 일요일, 춘천의 명소 신연교(薪延橋)에서 사진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한 회원들의 단체 사진이 실려 주목된다.²⁵ 당시에 폐나 고가(高價)였을 사진기를 하나씩 목에 걸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양복에 코트를 갖춰 입고 중절모를 쓴 남성들의 모습은 소양구락부 사진회가 재력이 상당한 고관들의 고급 취미반이었음을 짐작



6
『춘천소양구락부경사회』
『조선신문』
1936. 11. 5, p.4.

21 「在春素人寫眞同好者 昭陽クラブ成る」, 『朝鮮新聞』, 1936. 2. 14, p.4.

22 「昭陽俱樂部總會」, 『朝鮮新聞』, 1936. 4. 8, p.3.

23 「昭陽俱樂部競寫會開く」, 『朝鮮新聞』, 1936. 5. 6, p.4.

24 「昭陽俱樂部作品發表會賑ふ」, 『朝鮮新聞』, 1936. 10. 17, p.4.

25 「春川昭陽俱樂部競寫會」, 『朝鮮新聞』, 1936. 11. 5, p.4.

케 한다. 실제 소양구락부 회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일본인 관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1936년 10월 10일 춘천금용조합(春川金組樓)에서 열린 《소양구락부예회(昭陽俱樂部例會)》에서 4등을 수상한 와타나베 쓰루에(渡邊鶴衛)는 당시 춘천지청 법원의 판사였고, 5등을 한 야마카 미네조(山岐峯藏)는 춘천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2등 야마나카 마스라오(山中丈夫)는 춘천지청 법원과 서기(書記)였다.²⁶ 또 소양구락부의 사진 비평과 심사를 도맡아 했던 가와부치 소라(河淵天嵐)의 경우 남화(南畫)에 조예가 깊은 재력가이었던 듯하다.²⁷ 조선에서의 전력(電力)과 관련하여 철도회사(鐵道會社)를 세우고, 강원도 영월(寧越)에 석실공장(石室工場)을 건설했던 삼척개발회사(三陟開發會社)의 사람이었다.²⁸

1937년에도 소양구락부는 정례작품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하였다.²⁹ 그러나 1937년 6월, 소양구락부 월례회의에서는 1937년 7월 10일, 11일 양일간 작품발표회를 개최할 것을 논의하며, 《소양구락부 작품발표회》와 더불어 “양구군 양구면 양화가(洋畫家) 박수근 청년의 개인전을 열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³⁰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건으로 박수근 이후로는 소양구락부 작품전람회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튼 ‘청년화가 박수근의 개인전’이 당초 계획보다 며칠 미뤄진 1937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춘천공회당(春川公會堂)에서 《소양구락부작품전(昭陽クラブ作品展)》과 함께 개최되었다.³¹ 사실상 박수근 최초의 개인전이 춘천 소양구락부 회원들의 후원으로 열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시된 작품 수는 박수근

의 작품까지 포함하여 모두 120여 점이었다.³² 이날 출품된 소양구락부의 사진이나 박수근의 그림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신문지면에 소개된 소양구락부 작품전람회에서 수상한 작품 사진들은 매우 모던하면서도 서정적인 풍경 사진들 위주로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1937년 소양구락부 회장 이치키 다카시(市木孝嗣)의 사진은 박수근의 그

7
소양구락부전람회와
박수근개인전이 함께 열린
전시장 장면
『소양구락부 작품전람회』
『조선신문』
1937. 7. 28. p.4.



26 「昭陽俱樂部例會を開く」, 『朝鮮新聞』, 1936. 10. 13, p.5.

27 「昭陽俱樂部特寄寫眞展」, 『朝鮮新聞』, 1936. 9. 29, p.4.

28 삼척개발회사의 대표인지, 직원인지는 불명확하다. 「河淵天嵐來陵」, 『朝鮮新聞』, 1937. 6. 11, p.5.

29 「昭陽俱樂部, 16日第1回發表會を開く」, 『釜山日報』, 1937. 1. 16, p.6; 「昭陽俱樂部の作品發表會」, 『釜山日報』, 1937. 3. 18, p.6; 「昭陽クラブ」, 『朝鮮新聞』, 1937. 5. 6, p.4.

30 「昭陽俱樂部作品發表會」, 『朝鮮新聞』, 1937. 6. 4, p.4.

31 「昭陽クラブ作品展覽會」, 『朝鮮新聞』, 1937. 7. 31, p.4.

32 「昭陽クラブ作品展覽會」, 『朝鮮新聞』, 1937. 7. 28, p.4.

림과 매우 흡사하여 눈길을 끈다.^{도8} 한쪽에 나무가 서 있고 멀리를 머리에 인 여인과 등에 업힌 아기, 그 뒤를 쫓아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은 마치 박수근 회화의 소재를 예고해주는 듯 하다.^{도9} 박수근 그림에서의 반복되는 소재와 도상, 주제 의식은 이미 춘천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양구락부 회원들은 왜 그들의 작품발표회에 박수근의 개인전을 함께 열어주었을까. 또 박수근은 일본인 고관 및 사업가들로 구성된 소양구락부에 어떻게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일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37년 소양구락부의 회장 이치키가 미요시와 함께 강원도청에 근무하고 있던 동료였다는 것이다.³³ 이에 그보다 직급이 낮았던 이치키에게 미요시는 소양구락부 회원들의 작품전람회와 함께 박수근의 개인전이 열릴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 이 1936년 연초부터 소양구락부 회원들이 사진경진대회를 위해 출사를 다니던 장소들이 춘천신사, 소양정, 신연교, 소양호 등 풍경이 빼어난 춘천의 명소들이다 보니 소양호 등지에서 자주 스케치를 했던 박수근의 모습을 보고 회원 중 누군가가 미요시 과장에게 그를 소개해주면서 박수근과 미요시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미요시 본인이 소양구락부 회원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미요시는 1936년 강원도로 부임하기 전부터 농촌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실제로 1936년 3월에는 『조선의 농촌사회사업에 대한 고찰(朝鮮に於ける農村社會事業の考察)』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³⁴ 흥미로운 것은 박수근이 화가로서의 꿈을 결심하는 데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의 <만종(L'Angélus)>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미요시 역시 본인의 농촌사회사업에 관한 연구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명분과 의의를 밀레의 <만종>에서 찾고 있었다는 점이다.³⁵ 저서에서



33 1923년부터 경남도청 지방과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34년에 강원도청으로 부임하여 1938년까지 근무하였다. 1941년부터는 경성부청(京城府廳)에서 사회과장 및 성동부이사관(城東府理事官)을 지냈다.

34 三吉岩吉, 『(朝鮮に於ける)農村社會事業の考察』(大阪: 行政學會, 1936) 참조

35 김영나, 「박수근과 밀레」,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국립현대미술관, 2021), pp.62-71; 三吉岩吉, 위의 책, p.1.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기본적으로는 농촌사회의 빈곤을 막고, 금융과 의료, 생활경제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도, 청년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저술한 책 이외에도 미요시는 상당한 분량의 농촌사회사업과 관련한 논문 및 에세이들을 집필하였다.³⁶ 미요시는 다음 챕터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춘천에서뿐 아니라 평양에서도 박수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가 박수근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지지하였던 데에는 기본적으로 그가 박수근의 그림을 좋아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태도와 모습에 마음이 동하여 그를 도왔던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농촌의 가난한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계몽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농촌사회사업을 연구했던 인물이었기에 박수근을 돋는 데 더 적극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8

이치키 타카시의
소양구락부 작품발표회
출품작
『녹음(綠陰)의 표정(表情)』
『부산일보』 1937.3.18, p.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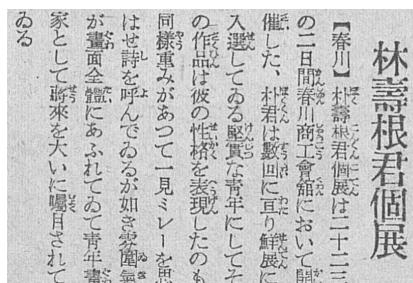
박수근
〈귀로〉의 세부
1964
나무판에 유채
31×18cm
개인소장

10

『박수근개인전』
『조선신문』
1938.10.25, p.5.

다음 해 1938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박수근개인전』이 춘천상공회관(春川商工會館)에서 개최되었다.³⁷ 박수근이 춘천에서 개인전을 두 번이나 가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인전의 경우 소양구락부와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미요시를 비롯한 소양구락부 회원 가운데 누군가가 박수근의 개인전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개인전을 열었던 10월 이치키는 두 달 전인 8월 전북도 청 사회과로 발령을 받아 춘천에 부재한 상황이었고, 미요시 역시 같은 해 9월 평남도 청 사회과로 옮긴 후였다.³⁸ 박수근의 개인전 소식을 보도한 기사에는 그가 “선전

에서 수 차례 입선한 견실한 청년화가”임을 강조하며, “청년화가로서 장래가 크게 주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춘천 시절 박수근은 1932년 조선미전에 첫 입선한 이후로 계속해서 입선자 명단에 들지 못하다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연속으로 입선하였다. 그가 입선했던 각 회차별 조선미전 도록을 살펴보면 당시 박수근의 거주지는 1936년은 ‘경기’, 1937년과 1938년은 ‘경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의 동생 박동근이 사



36 三吉岩吉, 「内地社會事業を視察して」, 『朝鮮社會事業』11:4 (朝鮮社會事業協會, 1933); 三吉岩吉, 「農村振興運動上警察機關に對する希望的私見」, 『警務彙報』338 (1934. 6.); 三吉岩吉, 「同胞愛に望む」, 『同胞愛』13:9 (朝鮮社會事業協會, 1935); 三吉岩吉, 「牛山里農村振興會の概況」, 『同胞愛』14:2 (朝鮮社會事業協會, 1936) 참조.

37 「朴壽根君個展」, 『朝鮮新聞』, 1938. 10. 25, p.5.

38 「市木氏榮轉」, 『朝鮮新聞』, 1938. 8. 9, p.5. 미요시의 전근과 관련해서는 「總督府辭令」, 『朝鮮新聞』, 1938. 9. 1, p.1.

상범으로 몰려 서울에서 옥고를 치루고 있던 까닭에 그의 옥바라지를 위해 춘천, 경기, 서울로 오고 가는 중간에 작품을 출품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³⁹ 그가 춘천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음에도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그가 이 시기 춘천이 아닌 ‘경기’나 ‘경성’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도 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춘천에서 박수근은 양구에서부터 그를 격려해주었던 오득영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시마타니를 위시한 춘천고보 미술 교사들의 직간접적 인지도, 소양구락부의 후원을 통한 최초의 개인전 개최와 연이은 춘천상공회관에서 의 두 번째 개인전, 조선미전에서의 다섯 번 입선이란 성과와 경험을 안고 춘천에서 맺은 미요시 과장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평양에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III. 평양에서의 행적

지금까지 박수근의 평양행(平壤行)은 춘천에서 인연을 맺었던 미요시가 평남도청(平南道廳) 사회과장으로 옮겨가면서 그를 잊지 않고 평남도청 사회과 서기(書記)로 취직시켜주어 1940년 평양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⁰ 그러나 실제 그가 평남도청에서 어떠한 업무를 맡았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익히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박수근이 평남도청 사회과의 ‘서기’로 재직했다는 부분이다. 보통학교까지 졸업한 박수근이 면(面)서기도 아닌 도청(道廳) 서기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조선총독부 직원록』과 『관보(官報)』를 살펴보니 박수근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⁴¹ 부인 김복순 여사는 당시 박수근의 급여가 32원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의 관등과 봉급을 살펴보면, 당시 도청 서기의 급여는 관등에 따라 월 40-60원 정도였다. 평남도청 11급의 봉급이 30원, 10급의 봉급이 35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박수근은 제일 낮은 하급 관리로 취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⁴² 또 1941년 조선미전에 입선

39 이에 대해서는 하수봉, 앞의 논문, p.10 참조.

40 김복순, 「박수근 화백의 生記」, 『귀로』(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2016), p.254.

41 1939년 평남도청 사회과 서기는 ‘최장민(崔章敏)’이었으며, 1940년에는 ‘강정현(康貞賢)’, 1941년은 ‘大原弘豊’, ‘정찬백(鄭燦伯)’ 등이 기록되어 있다.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참조.

42 장리석은 그가 처음 평남도청에 취직하였을 때 받았던 돈이 15원이라고 기억하며, 당시 방 하나 얻을 돈



11

「훈훈한 인정미담
-과장과 청년화가」
『아사히신문』
1939.8.15, p.5.

한 평양 출신의 화가들을 소개하는 기사에도 박수근은 “평남도청 사회과에 근무하는 박수근씨”라 지칭되며 직급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⁴³ 이처럼 ‘서기’라는 직함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박수근의 평양에서의 행적을 살펴보는 데 있어 ‘평남도청 사회과 서기’라는 직책이 막연하게 그가 사회과에서 문서정리를 담당했거나 미요시 과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맡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박수근이 평남도청에서 실제 담당했던 일은 무엇일까. 또 미요시는 보통학교만 졸업한 박수근을 어떻게 평남도청에 취직시켜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아래의 기사는 박수근이 평양에 온 계기와 그가

평양에서 맡고 있던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주목된다.⁴⁴

「훈훈한 인정미담(人情美談) -과장(課長)과 청년화가(青年畫家)」

청빈함을 감수하지만, 예술에 포로가 된 청년과 그 순수함에 내다보고 직(職)을 내주어 재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한 과장과의 훈훈한 화제(話題)가 있다. 조선 강원도 출생의 박수근과 평남도청 사회과 미요시 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박군은 강원도 춘천에 거주, 유소년 시기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잘 그렸던 박군은 불우한 환경에 처했어도 □에 굴하지 않고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보답으로 1932년 선전에 첫 입선한 이래 올해까지 연속으로 입선의 영광을 얻었다. 당시 강원도 사회과장이었던 미요시씨가 그 순수함과 진면목에 동정하여, 그림자가 되고 빛이 되어주며 원조해줬다. 작년 가을 미요시씨의 평남도 전출 이후로는 소식을 그다지 주고받지 않다가 미요시 과장의 발의안으로 최근 평남도정동연맹(平南道精動聯盟)에서 종이연극(紙芝居, 가미시바이)을 작성하게 되어 그 일에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면서 중 미요시 과장은 즉석에서 박수근을 추천하였다. 처음에는 그 관계를 의심한 사람들도 박군의 사람됨을 미요시 과장에게 듣게 된 후 크게 납득하였고, 박수근은 공

이 1월 50전 정도였다고 설명한다. 장리석, 권행가, 「제3차 해방 후 평양에서의 미술활동: 주호전을 중심으로」, 『장리석 구술채록문』(2006. 10. 12), p.122.

43 「平壤の入選者」, 『朝日新聞』, 1941. 5. 29, p.7. 이는 한 예로 같은 시기 평양부청(平壤府廳)에서 일했던 강원도 춘천 출신의 박문홍(朴文弘)이 조선미전에 입선했을 때 “박문홍씨는 평양부청 토목과에 근무하는 부리원(府吏員)으로……”이라고 직급을 언급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美術平壤의 자랑-天才의 中學生 까지 석기여서 鮮展에 十一人入選」, 『毎日申報』, 1940. 5. 30, p.3.

44 기사 원문은 「麗しの人情美談 課長と青年畫家」, 『朝日新聞』, 1939. 8. 15, p.5.

식적으로 11일부터 평남도 사회과의 일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지금은 미요시과장의 은덕에 감격하면서, 생생지도(更生指導)의 □와 정동(精動)의 종이연극 그림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다.

미요시 과장의 전언, “박군의 순수함에 실로 감명받았고, 직책을 얻은 박군은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더욱 정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박군의 전언, “미요시 과장의 은혜는 한평생 잊을 수 없다. 이후 관리로서 본분을 다함과 동시에 희망하는 길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밀줄은 필자의 강조)

위의 기사는 평양에서의 박수근의 행적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려준다. 우선, 박수근의 평양으로 온 시점에 대해서이다. 이 기사는 1939년 8월 15일자 『아사히신문』의 기사로 지금까지 알려진 박수근의 1940년 평양행 설(說)을 정정해야 함을 알려준다. 그러나 김 여사의 회고록에는 “1940년 2월 10일 금성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3개월이 될 무렵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일도 못돼서 평남도청 사회과장에게서 평양도청 사회과 서기로 채용을 하게 되었으니 속히 오라는 내용의 전보를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김복순 여사의 꽤 상세한 기억은 신문에 박수근의 인물사진과 인터뷰 내용까지 보도되었음에도 1년이란 시간차에 대해 의아함을 느끼게 한다. 다행히도 2016년 박수근미술관 전시도록 『귀로』에 김복순 여사의 회고록 원본이 실려 있어 살펴보니 김 여사가 결혼 날짜의 연도를 처음에 ‘1939년’으로 썼다가 볼펜으로 여러 차례 그은 후 ‘1940년’으로 정정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⁴⁵ 아마도 회고록을 집필하던 과정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박수근의 결혼 시점도 1939년 2월 10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1939년 6월에 열린 18회 조선미전에 <여일(麗日)>을 출품한 주소지가 ‘강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기사에 나와 있듯 그가 1939년 8월 11일자로 평남도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⁴⁶

한편, 미요시는 평양으로 전직(轉職) 이전 1938년 7월 강원도청 사회과장으로 있

45 김복순, 앞의 책, pp.242-245 참조.

46 이듬해 1940년 9월에 발간된 선전 도록에는 박수근의 출품지가 ‘평양’으로 표기되어 있다.

으면서,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 강원도연맹이사(江原道聯盟理事) 겸직을 맡았다.⁴⁷ 그로부터 두 달 뒤 1938년 9월 평남도청 사회과장으로 발령받은 것이다.⁴⁸ 미요시는 기사에서 평남도청에 박수근의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로 “평남도청 동연맹에서 종이연극 제작에 그림 그릴 사람이 필요해서”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평남도정동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 평안남도연맹(平安南道聯盟)을 의미한다.

국민정신총동원은 1937년 7월에 발발했던 중일전쟁을 국가총력전(國家總力戰)으로 강행하면서 전시동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38년 시작된 것이다. 이에 13개의 도(道)마다 지역연맹을 조직했고, 이렇게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은 크게는 도(道), 작게는 정(町) 연맹까지 조직되어 각 부락에 5호 단위로 애구반(愛國班)이 결성되었다.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모든 단체나 문화 전반이 국책 협력 아래에서 통제되었다. 전쟁 협력을 위한 전체주의였던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국가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임을 교육·선전하여 국민들을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조선의 농어촌 지역 사람들이 신문이나 라디오 등 문화적 서비스가 없고, 일본어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일제는 국책협력을 위한 사회교육적 방법으로 시사뉴스 사진, 영화, 강연

회 등을 보급하였는데, 가장 환영받았던 수단이 바로 ‘종이연극’이었다.⁴⁹ 간단한 데다 효과적이며 가장 강력한 ‘국책 선전물(프로파간다)’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루는 내용은 ‘전쟁 시기의 시국인식 강화’, ‘징병제 선전’과 ‘군사사상보급’, ‘국어사용’, ‘방공방첩(防共防諜)’, ‘세금납부인식교육’, ‘근로보국(勤勞保國)’ 등이었다.⁵⁰ 국책 종이연극은 전시체제기 제국 일본이 추진했던 거의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⁵¹

당시 종이연극은 ‘가미시바이(紙芝居)’, ‘지연극(紙演劇)’,

47 「國民精神總動員 江原道聯盟結成式」, 『毎日申報』, 1938. 7. 9, p.3.

48 「地方人事」, 『朝鮮新聞』, 1938. 9. 3, p.4.

49 오오타케 기요미, 『근대 한·일 아동문화와 문학 관계사: 1895~1945』(청운, 2005), pp.191-197.

50 오오타케 기요미, 「일제 전시통제하(1937-45)의 한국신민화 아동문화의 실태-그림연극·동화집·아동 도서·작문집의 고찰-」, 『동화와 번역』(2004), pp.9-16.

51 이대화,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선전매체, 종이연극(紙芝居)」, 『사회와 역사』108 (2015), p. 129.



‘화극(畫劇)’, ‘조희연극’, ‘조희광대’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불리웠다.⁵² 보통 4절지만한 크기의 마분지 16장에서 28장 사이가 한 세트로, 매우 간단한 나무액자형 틀로 만든 무대장치에 1세트의 그림을 넣어 이것을 순차적으로 빼면서 변해가는 그림에 따라 억양을 붙여 재미있는 연극처럼 대사하는 구조이다. 이 무대장치는 자전거 뒷부분에 놓는 경우가 많아서 농산어촌의 오지까지 침투할 수 있는 최고의 이동하는 선전술이었다.⁵³ 종이연극은 각 부(府)와 군청 등의 행정단위에서 구입하여 정과 면(面), 도(島) 등에 보급하였고, 구연자(口演者, 實演者)로 교사나 군청 직원 등을 활용하였다.⁵⁴ 미요시의 경우도 총독부의 이러한 시책(時策)에 따라 종이연극을 정책적으로 보급하고 제작하는 기획자의 역할을 맡았고, 종이연극의 그림을 그릴 제작자로 박수근을 떠올린 후 그를 추천한 것이다.

결혼을 하고, 도청에 취업이 된 박수근은 평남도청 사회과의 일원이 되자마자 《애국반의 활동(愛國班の活動)》이란 종이연극의 그림을 맡았다.⁵⁵ 박수근이 종이연극의 그림을 그리면 같은 과에 소속된 와타나베의 촉탁이 각 군을 순회하면서 애국반장(愛國班長)들에게 애국반의 활동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시연하는 식이였다. 1940년 정동평양부연맹(精動平壤府聯盟)은 박수근이 그림을 담당하면, 구연을 맡았던 와타나베가 “내선일체와 시국인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동애국반(精動愛國班)》, 《애국소년(愛國少年)》, 《총후(銃後)의 국방(國防)》, 《내선일체미담(內鮮一體美談)》 등의 종이 연극을 평양부에 있는 소학교부터 순회를 시작할 것”이라며 종이연극의 보급과 전파에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⁵⁶ 위에서 언급된 종이연극들은 조선총독부 문서과(文書課)와 조선군사령부에서 제작하여 보급한 주제의 종이연극들로서 1938년 4월 20일 실시된 ‘시국인식 선전 그림연극 구입처 조사’에서 평안남도에서는 구입한 적 없는 종이 연극들이다.⁵⁷ 이에 1940년 정동평양부연맹에서 이를 구입하여 와타나베가 시연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일부만 박수근이 그림을 담당했을지도 모른다.



13
농촌에서 종이연극을
실연하는 광경
『朝鮮』 1938년 5월호

52 문경연, 「일제말기 종이연극(紙芝居)의 실연(實演)과 제국의 이벤트 II」, 『돈암여문학』 36(2019), p.293.

53 문경연, 위의 논문, p.303, p.307.

54 「紙芝居《愛國班の活動》- 平南で新試みの巡回」, 『朝日新聞』, 1939. 8. 31, p.5. 애국반(愛國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던일본사 편, 『잡지《모던일본》 조선판 1940』(여문화사, 2020), pp.260-262 참조.

55 「紙芝居□一役 愛國班を巡回」, 『朝日新聞』, 1940. 6. 27, p.5.

56 이대화, 앞의 논문, p.133.; 오오타케 기요미, 앞의 책, p.199.

이를 확인할 순 없지만, 당시 박수근은 평양의 국민총력연맹에서 주관하는 애국반 활동 및 선전 활동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그림들을 맡아 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장리석은 “…미요시가 ‘너 내일만 다하고서 맘대로 그림만 그려라!’ 아니 그와 똑같이 그 뭘 목탄이나 이렇게 책 열면, 거기에 뭘 포스터 그려 넣고, 그런 걸 ‘생각해서 너 하라!’ 그거 하는 걸로 들어와서…”라고 구술하는데, 이는 아마도 종이연극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박수근이 평남도청 위생과(衛生課)에서 필요한 포스터나 잡지 등의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고 증언한다.⁵⁷

한편 미요시는 1940년 10월 사회과장 직을 맡으면서 국민총력과(國民總力課)에 근무를 명(命) 받는다.⁵⁸ 이는 미요시가 국책 선전에 더욱 본격적으로 관여하고 활동했음을 암시한다. 당시 평남도청에서 미요시와 함께 근무했던 서무과장 다케스에 스즈스케(竹末俊介)는 애국반장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직접 종이연극을 시연하였다.⁵⁹ 미요시는 정책을 만들고, 박수근은 그림을 그리고, 다케스에는 시연을 한 것이다. 1941년 다케스에는 조선 전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일본교육가미시바이협회에서 주는 종이연극 면허장과 기술장을 받았고, 이를 위해 협회이사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면허장을 수여해 화제가 되었다. 신문에는 <총후의 칼>을 시연하는 다

케스에의 사진을 게재하며 “처음에는 어설판지만, 취미를 갖고 기술을 연마하면서 최고가 됐다”는 그의 인터뷰와 함께 애국반장을 맡고 있는 그가 조선 최고의 종이연극 시연자라고 한껏 추켜 세우고 있다.⁶⁰ 이 기사는 당시 일본에게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이연극이 매우 중요한 대국민 선전 계몽 도구였음을 반증해준다. 이에 위에서 살펴보았던 1939년 8월 15자 『아사히신문』에서 ‘가난한 조선인 청년화가’에게 도청의 자리까지 만들어주며 종이연극의 그림 그리는 일을 맡겼던 미요시 과장과 그가 베풀어 준 온정에 감사해하는 박수근을 화제로 부각시켜 기사화한 의도와 저의(底意)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케 한다.

종이연극은 육필(肉筆)로 그린 것과 인쇄용으로 대량 생산된 것이

57 장리석 구술채록문, p.122, pp.124-125.

58 「平南道辭令」, 『朝鮮新聞』, 1940. 10. 27, p.3.

59 다케스에 스즈스케는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1923년 평안남도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43년까지 전 매국, 경찰부 등 주로 평양지역에서 관료 생활을 한 인물이다.

60 「紙芝居協會から-晴れの免許狀」, 『朝日新聞』, 1941. 11. 16, p.7.

14
종이연극을 시연해보이는
다케스에 스즈스케의 모습
『가미시바이협회 발행
공식 면허장』
『아사히신문』
1941. 11. 16, p.7.



있다. 대부분의 종이연극의 실물은 거의 소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발견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현재는 작품명만이 확인할 수 있다.⁶¹ 이에 박수근이 4절에서 8절 지 정도 되는 화면에 스토리가 있는 장면들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묘사하였을지 궁금하다. 현재 박수근이 그린 종이연극은 전해지지 않지만, 박수근어린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박수근의 그림동화집은 그가 어떤 스타일로 종이연극을 그렸을지 짐작케 한다. 이 동화집은 1950년대 말 박수근이 자녀들의 학습·독서용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1995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⁶²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 「천합 소문 장군」, 「아버지 찾는 유리 소년」, 「광개토대왕」, 「활 잘 쏘는 주몽」, 「낙랑 공주와 왕자 호동」, 「을지문덕 장군」 등 총 7가지의 고구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박수근이 종이 위에 수채화로 그림 13점을 그리고, 부인 김복순이 그림 뒷면에 이야기를 쓰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구성은 종이연극과 비슷한 듯 하지만, 실제 종이연극은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그림 뒤에 구연자가 연사할 대본이 적혀있다는 점에서 다르다.⁶³ 김복순 여사는 1950년 금성에서 북한군의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다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진으로 금성이 국군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자 박수근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국군환영”이라고 쓴 포스터와 플랭카드를 그리고 쓰고 해서 온 거리에다 부치고 달고 하였다. … 나는 그때 애국부인회 회장을 하게 되고, 성남 아버지는 선전물에 대한 것은 다 손수 쓰고 그리고 해서 기뻐 일했다”고 전한다.⁶⁴ 이는 박수근에게 있었던 예외적인 정치적 예술활동이 아닌, 그가 1939년부터 해방 전까지 약 6년이란 시간 동안 일로서 매일 해야만 했던 매우 익숙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가 포스터와 종이연극이란 매체에 능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그의 회화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의 도상과 배치, 그림의 소재, 마치 연극무대 같은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력 등을 다시 새롭게 분석 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15
 박수근 그림 · 박인숙 씀
 「활 잘 쏘는 주몽」의
 한 장면과 이야기
 『고구려이야기 그림동화집』
 1950년대
 종이에 수채
 박수근어린이미술관 소장



61 『생업보국(生業保國)』(15경), 『반도(半島)의 리쿠와시』(20경), 독립기념관 소장 『밀항방지』(19경),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귀여운 손녀(かはい孫娘)』(20경)의 경우 그 실제가 온전히 남아있다. 권희주, 「식민지 조선의 ‘가미시비야’- 시각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선전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5 (2015), p.280; 종이연극 전문(全文)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이대화, 앞의 논문, pp.145-152 참조; 朝鮮總督府 情報課指導, 『귀여운 손녀(かはい孫娘)』(日本教育紙芝居協會, 1942).

62 「朴壽根(박수근) 그림동화집 발굴」, 『조선일보』, 1995. 2. 26, p.1.

63 종이연극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주신 동국대학교 문경연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64 김복순, 앞의 책, p.272.

박수근이 평양에 건너간 후 첫 출품한 <절구질(맷돌질) 하는 여인(臼挽く女)은 19회 조선미전에 입선되었고, 이때부터 박수근은 ‘미석(美石)’이란 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⁶⁵ 1941년 5월 출품한 <맷돌질 하는 여인(マン挽く女)>이 조선미전에서 연속으로 입선하고, 박수근은 같은 해 7월 26일 ‘아라이 쥬꼬(新井壽根)’으로 창씨개명 한 후 이때부터 그가 참여한 해방 이전까지의 모든 전람회에는 ‘新井壽根’이란 이름으로 출품하였다.⁶⁶ 1942년 박수근은 조선미전에서 <母子>로 입선했고, 다음해 22회에서도 <실을 뽑는(잣는) 여인(絲を紡ぐ女)>으로 입선하여 작품 판매 희망가격으로 1,000원을 제시하기도 했다.⁶⁷

1942년 박수근은 조선총독부 정보과(情報課) 및 총력연맹이 후원하고 조선미술가협회의 주최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양화는 미츠코시(三越), 동양화는 조지아(丁子屋) 배화점에서 개최되었던 《반도총후미술전람회(半島銳後美術展覽會)》에 ‘平北 新井壽根’으로 <일하는 가족(家族)>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⁶⁸

또 1944년에는 평안남도총력연맹(平安南道總力聯盟) 문화부(文化部)의 주최로 1944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평양상공경제회(平壤商工經濟會)에서 개최된 《결전총력미술전(決戰總力美術展)》에 ‘新井壽根’으로 <일하는 여자(働く女)>를 출품하여 평남상공경제회장상(平南商工經濟會會頭賞)을 수상했다. 여기서 최연해(崔淵海, 1910~1967)는 <용광로(鎔鑄爐)>란 작품으로 총력연맹회장상(總力聯盟會長賞)을, 김병기(金秉駒, 1916~2022)는 ‘金森秉駒’란 이름으로 <석회석을 깨트는 사람들(石灰石を割る人々)>을 출품해 총력연맹부회장상을 받았았다. 장리석(張利錫, 1916~2019)은 창씨개명한 ‘다카하시 미쓰오(高橋三男)’로 <산업전사(產業戰士)>를 출품해 총력연맹문화부장상을 받았다.⁶⁹ 박수근의 경우 실질적으로 4등을 한 셈이다. 작품의 이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작품명으로 미루어보아 박수근이 이전에 그려왔던 소재와 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동보국(勞動報

65 작품명을 직역하면 <절구질하는 여인>이지만, 그림의 도상은 ‘맷돌질’하는 여인의 모습인 까닭에 <맷돌질하는 여인>으로 불리고 있다.

66 「商業及法人登記」, 『朝鮮總督府官報』4183, 1941. 1. 4, p.12.

67 당시 1941년 조선미전 인기 서양화기들의 작품 판매 희망 가격은 미술시장에서 대체로 1,000~2,000원의 가격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영옥, 『미술시장의 탄생』(푸른역사, 2020), pp.252-253.

68 「彩管에 報國의 热火-總後美術展 今日開幕」, 『毎日申報』, 1942. 11. 3, p.3. 『京城日報』, 1942. 11. 1: 1942. 11. 5; 1942. 11. 8 참조.

69 「總力美術展 受賞者決定」, 『毎日申報』, 1944. 10. 18, p.2; 「總力美術展の受賞者を発表」, 『朝日新聞』, 1944. 10. 21, p.2.

國)으로서 가사노동과 함께 남성 부재의 총후(銃後) 여성을 강조했던 주최 측의 의도에 걸맞는 결전색(決戰色)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소재와 주제로 여겨져 수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⁷⁰ 박수근이 해방 직전까지 전시(戰時) 상황 속에서도 공모전에 출품하며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갔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1944년 박수근이 평양 체신회관에서 개최한 《6인전》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박수근 - 봄을 기다리는 나목』 전시 도록에는 박수근이 6인전에 참여한 것으로 소개되었으나 이는 불명확한 사실로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⁷¹ 6인전은 현재까지 신문기사나 잡지 등에 소개된 사례 없이 구술로만 전해졌던 전람회로 6명의 참여작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화가로 이중섭, 김병기, 문학수(文學洙, 1916~1988), 윤중식(尹仲植, 1913~2012), 황영수(黃廉秀, 1917~2008)가 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의 경우 박수근과 이호련이 거론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병기와 윤중식 모두 6인전을 함께 했던 화가로 이호련을 지목하고 있으며, 박수근을 제외하곤 모두 일본 유학생 출신들로 꾸려진 까닭에 박수근이 6인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⁷²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수근은 당시 평남도청 사회과장이자 국민총력연맹 과에 소속되어 있던 미요시의 도움으로 평남도청 사회과에 근무하며 전쟁기에 필요한 포스터 및 종이연극(가마시바이) 등 다양한 선전(宣傳) · 선동(煽動) 미술을 도맡아 그렸다. 그가 ‘국민화가’로 불리는 데에는 사실 그가 일제강점기 반도총후미술전이나 결전미술전에 참여한 이력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김병기의 경우 결전미술전에서 2등을 했고, 박수근 역시 두 번의 전쟁미술전에 참여하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쟁 시기, 화가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전쟁 미술에 참여하거나 징병에 끌려가던 상황이었다.⁷³ 어쩌면 그 시기를 살며 활동했던 모든 화가들은 전쟁 미술에 가담했음이 ‘이미’ 밝혀졌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랬

70 문정희, 「전쟁의 표상, 총후 여성」, 『미술사논단』52, pp.145-152.

71 국립현대미술관 편, 「박수근 연보」, p.289.

72 윤범도, 『백년을 그리다』(한겨레출판, 2018), p.278;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향(懷鄉)》 전시소개 참조.

73 국민화가 박수근이 전쟁미술전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를 친일화가로 등극시키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전쟁미술에 참여했던 사실 때문에 친일화가로 낙인찍힌 이들을 두고 박수근 만 제외시켜 준다면 그것 또한 선택적 친일이자, 공평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근대의 화가로 누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IV. 맷음말

지금까지 박수근의 알려지지 않았던 춘천에서의 활동과 평양에서의 행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가 화가로 성장하는 데 길을 열어주고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던 곳이 춘천이라는 점에서 춘천은 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양구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만 미술을 공부했다는 사실에 간혀있기보다 그가 ‘시마타니’란 일본인 미술교사를 알고 지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당시 미술교육으로 명성이 높았던 춘천고보 미술교사들 가운데 그와 교류했을 법한 시기의 일본인 화가를 추적하여 박수근 초기화풍 형성 배경을 짚어보았다. 그 과정에서 춘천고보 미술교사들의 화풍이 경성제2고보의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 1899~1991)와 같은 아카데미즘 양식을 추구했다기보다 사토 구니오(佐藤九二男, 1897~1945)와 결을 함께 하는 니카텐, 도쿠리츠텐(獨立展) 계열의 화풍을 추구하는 이들이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1932년 이미 조선회단에 전위계열의 화풍이 대세를 이루던 상황에서 일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박수근의 그림은 정확한 데생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보다 표현 주의적이고 서양화단의 신진세대 화풍에 박수근이 경도될 만한 환경이 직간접적으로나마 조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박수근이 생전 개인전 한번 못해보고 떠난 ‘비운의 예술가’라는 수식어를 떼고, 춘천 시절 두 번의 개인전을 가진 ‘기성작가’였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당시 춘천의 관료와 사업가들로 구성된 소양구락부 사진동호회의 후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며, 여기에는 소양구락부와의 선후 관계를 떠나 미요시 과장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던 사실은 조선미전에 입선한 1932년 이전부터 박수근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지만 성실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그림에 열정이 가득한 이 청년화가를 누구라도 돋고 싶어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생활이 궁핍했어도 화가라는 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춘천에서 알게 된 미요시 과장은 음으로 양으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듯하다. 평남도청으로 전근을 간 후에도 잊지 않고 그를 떠올려 취직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미요시 과장이었다. 그는 당시 평남도청 사회과장 및 국민총력연맹 업무도 함께

맡고 있었는데, 그에게 맡긴 일도 이와 관련된 전쟁 시기 ‘시국인식’과 ‘군사사상보급’, ‘제금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종이연극의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 종이연극은 당시 자전거라는 손쉽고 경제적인 장비 덕분에 아무리 불편한 시골에라도 보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회교육미디어였다. 이 시기 모든 문화예술 활동은 통제와 감시를 당하고 있었고, 박수근은 미요시 덕분에 평남도청 사회과의 일원으로서 징병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박수근이 평양으로 간 시기가 1940년이 아닌 1939년 8월 11일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박수근과 김복순의 결혼 날짜도 1939년 2월 10일로 정정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또한 1942년, 1944년 각각 《반도총후미술전》과 《평양결전미술전》에 참여하는 등 전시 상황에서도 꾸준히 창작을 지속했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944년에 열린 《6인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 박수근의 평양에서의 행적은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평남도청 직원으로서의 박수근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화가로서 박수근에게 평양 시절이 어떠한 영향과 의미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호회(珠壺會)에서의 활동과 교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본래 이번 연구에서 주호회와 박수근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하였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별도의 연구로 다룰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주호회의 오노 타다아키(小野忠明, 1903~1994)에 대한 이해와 실제, 박수근 그림과 고구려 고분벽화와의 관련성, 그리고 주호회를 비롯한 평양회단의 화가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던 일본 구니카이(國畫會)와의 영향 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박수근의 독자적인 양식의 연원이 형성되는데 평양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Keywords

박수근 Park Soo-Keun, 소양구락부 Soyang Club, 종이연극(紙芝居) Kamishibai 춘천 근대미술 the modern art of Chuncheon 평양 근대미술 the modern art of Pyongyang 결전미술전 Battlefield Art Exhibition

투고일 2022년 3월 27일 | 심사일 2022년 4월 25일 |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1일

참고문헌

사료

- 『京城日報 Keijo Nippo』
『每日申報 Maeil Sinbo』
『朝鮮新聞 Chosun Shimbun』
『朝日新聞 Asahi Shimbun』
『동아일보 Donga Ilbo』
『조선일보 Chosun Ilbo』
『朝鮮 Chosun』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The Personnel Records of Governor-General of Chosun』
『朝鮮總督府官報 The official gazette of Governor-General of Chosun』

논저

- 김인아 Kim, Ina, 「박수근 카탈로그 레조네 연구결과 보고서 Report on the Research Results of catalogue raisonné in the Park Soo-Keung」『미술평단 KOREAN ART CRITICS REVIEW』132:132, 2019. 03, p.115-138.
- 문경연 Moon, Kyungyeon, 「일제 밀기 종이연극(紙芝居)의 실연(實演)과 제국의 이벤트 II Stage Performance of Paper Theatre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Imperial Event II」, 『돈암어문학 Donam Language literature』36, 2019. 12, pp.291-316.
- 서성록 Seo, Seongrok, 「박수근 전작도록 연구의 세목과 결과 Details and Results on the Park Soo Keun's Catalogue Raisonné Research Conduct」, 『기초조형학연구 Journal of Basic Design & Art』21:5, 2020, pp.277-294.
- 서성록 Seo, Seongrok, 「박수근의 SAC 개인전 연구 Research on Park Soo-Keun's SAC Solo Exhibition」, 『기초조형학연구 Journal of Basic Design & Art』19:5, 2018, pp.365-382.
- 오오타케 키요미 Otake Kiyomi, 『근대 한·일 아동문화와 문학 관계사: 1895-1945 A History of Modern Korean-Japanese Children's Culture and Literature: 1895-1945』, 서울: 청운 Seoul: CheongYun, 2005.
- 윤범도 Yoon, Bummo, 「朴壽根의 예술세계와 民族美의 구현 The Art World and the Realization of People's Aesthetics in Park Soo-Keun」, 『한국근대미술사학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Art History』3:3, 1996. pp.26-45.
- 이대일 Lee, Daell, 『사랑하다, 기다리다, 나목이 되다 to love, to wait, to become a naked tree』, 서울: 하늘아래 Seoul: Hanelarae, 2002.
- 이대화 Lee, Daehwa,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선전매체, 종이연극(紙芝居) The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Kamishibai(紙芝居) in Colonial Korea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사회와 역사 Society and History』108:108, 2015, pp.119-154.
- 장리석, 권행가, Jang, RiSeok, Kwon, Heangga, 「제3차 해방 후 평양에서의 미술활동: 주호전

- 을 중심으로 The third, Art Activities in Pyongyang After Liberation: Focusing on the Exhibition of Juhohoe, 『장리석 구술채록문 Jang RiSeok's Oral records』, 2006. 10. 12, pp.105-152.
- 하수봉 Ha, Soobong, 「박수근의 생애와 소묘작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iography of Park SooKeun & his drawing」,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2006. 6.
- 황정수 Hwang, Jeongsoo, 『일본 화가들 조선을 그리다 Japanese Painters Draw Joseon』, 서울: 이숲 Seoul: ESoope, 2019.

도록

- 『귀로 Homeward Bound』, 양구: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Yanggu: Park Soo Keun Museum in Yanggu County, 2016.
-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 Park Soo Keun: The Naked Tree Awaiting Spring』,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Seoul: National Museum of Modern & Contemporary Art, 2021.
- 『우리의 화가 박수근 Our Painter, Park Soo-Keun』, 서울: 시공사 Seoul: Sigonsa, 1995.
- 三吉岩吉 Miyoshi Iwachiki , 『(朝鮮に於ける)農村社會事業の考察 (In Joseon) Consideration of Rural Community Projects』, 東京: 行政學會 Tokyo: The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36.

The Debut of Rookie Artist Park Soo-Keun

Focusing on his Early Artworks in Chuncheon and Pyeongyang

Bae, Wonjung

Park Soo-Keun(1914-1965)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painter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 He always has modifiers such as “National Painter”, and “local painter”. Nevertheless, little is known about his early activities in Chuncheon and Pyeongyang.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Park Soo-geun was known as a “unfortunate painter who has never held an individual exhibition in his life” through newly discovered literature data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but in fact, he held two individual exhibitions in Chuncheon. This was possible because of the sponsorship of Miyoshi Iwakichi, the director of social affairs at the Gangwon-do Office, and the Soyang Club in Chuncheon. In addition, it was examined that Park Soo-geun did not receive regular art education, but there was direct or indirect exchange with Japanese art teachers in Chuncheon high school.

Meanwhile, it was confirmed that Park Soo-Keun, who was hired as a worker of Pyeongnam-do with the help of manager Miyoshi, was in charge of drawing a Kamishibai promoted by the Governor-General of Chosun during the war. His first Kamishibai was “Activity of the Patriotic Class.” During his stay in Pyongyang, he was selected for the 19th to 22nd consecutive “Government-supervised art exhibitions”, and won the “Battlefield Art Exhibition,” showing consistency in submitting to the contest even in the exhibition.

